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논술(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지원 전형	일반 전형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응 시 좌 석 번 호		감 독 화 인	
----------	-------	----------	--	----------	--	--------	--	----------------------------	--	------------------	--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50점)

<제시문 1>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제빵업자들이 자비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돈벌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물건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시키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각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뿔은 외부 포식자에 맞서는 무기가 아니라 번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다. 이런 싸움에서는 뿔의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다. 돌연변이를 통해 큰 뿔을 가지게 된 수컷들은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돌연변이는 빨리 퍼져간다. 이런 돌연변이는 개별 말코손바닥사슴의 번식 적합성은 높이지만 종족 전체에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뿔이 커지면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개별 사슴에게는 큰 뿔이 이득이고, 집단에게는 작은 뿔이 유리하다. 수컷들의 뿔 경쟁에서는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슴이 뿔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개별 사슴들도 손해 보지 않고, 집단에게도 유리하다. 하지만 아무런 규제도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어떤 사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시문 3>

한국은 경이로울 만큼 다이나믹한 사회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침이 없고, 사회의 온갖 소소한 구석에서 기발한 발상을 해낸다.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동, 남미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것은 이런 다이나믹함에 보내는 경탄이다. 다른 한편, 한국은 각박하고 무자비한 사회다. 얼마 안되는 승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군사작전을 치루듯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승리한 이들은 약자를 돌아 볼 여유가 없고, 중년과 노년층의 미래, 청년의 일자리는 불안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부당하게 설계된 경쟁구도 덕택에 사교육산업같은 특정부문만 비대해졌다. 많은 외국인이 한류스타와 보통의 한국인을 바라볼 때 느끼는 괴리와 혼란도 이런 한국사회의 두 얼굴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문제 1-1) 위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350자 내외)

(문제 1-2) 위 <제시문 2>의 시각에서 <제시문 3>에서 언급하는 한국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논술하시오. (550자 내외)

【문제 2】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50점)

<제시문 1>

그런데 실행과 관련해서 보면, 경험은 기술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우리는 유경험자들이 경험 없이 이론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보다 일을 더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앎과 전문적인 지식이 경험보다 기술에 더 많이 속한다고 생각하며, 기술자들이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상정하는데, 지혜는 어떤 경우에는 앎의 동반자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 까닭은 전자의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은 이유와 원인을 알지만, 유경험자들은 사실만 알 뿐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들보다는 건축가들이 각각의 일에 대해서 더 권위가 있고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제작되는 것들의 원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행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고 원인들을 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는 징표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경험보다 기술을 더 높은 수준의 학문적

(뒷면에 계속)

인식으로 여긴다. 기술자들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유경험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여러 감각 가운데 어떤 것도 지혜로 여기지 않는데, 분명 그것들은 개별자들에 대해서는 더 없이 중요한 지식들이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있는지 말해 주지 않으니, 그것이 알려 주는 것은 예컨대 불이 뜨거운 이유가 아니라 불이 뜨겁다는 사실이다.

<제시문 2>

나는 매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본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서로에게서 피상적이고 일차원적인 이미지만을 바라보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은 등에 짐을 지고 높은 산을 넘어 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끔찍하군!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일까?”

그들은 자기들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라다크 사람들이 오르던 바로 그 산을 올라가는 기쁨을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들은 또 너무 움직이지 않아 자신의 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잊고 있다. 일하는 시간에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 시간에 그것을 보충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워에 오염된 도시 공기를 가로질러 운전을 해서 헬스클럽에 가기도 한다. 그리고는 지하실에 앉아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는 페달을 밟아 댄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

개발 계획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관광 산업이 본격화된 것과 함께 서구와 인도 영화의 유입이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텔레비전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미디어들은 라다크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제로 ‘화려함’과 ‘힘’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도구들과 마술 같은 장치들이 있다. 또 그 많은 기계들 중에는 사진을 찍어 주는 것도 있고 시간을 알려 주는 것 그리고 불을 피워 주는 것도 있다. 심지어 사람을 다른 장소로 여행을 시켜 주는 것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기계도 있다. 기계는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참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하얗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게 아니다. 영화 속에는 돈 많고 아름답고 용감한 사람들이 기쁨과 매력이 넘치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라다크의 젊은이들에게 영화는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영화의 장면들과 대비되는 자신들의 삶은 미개하고 시시하고 무능한 것 같다. 현대화된 사회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들은 얼굴을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주 어리석고 창피한 사람 같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밭에 나가 일을 하라면서 돈 한 톨도 생기지 않는 일 때문에 손에 흙을 묻히게 한다. 서양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사는 세계와 비교해 보면 자신들의 문화는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다.

세계 전역의 농경 문화권에 사는 수백만의 청소년들은 서구의 문화가 그들 고유의 전통문화에 비해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화된 서방 세계의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물질적인 측면을 겉으로만 보고 있는 그들이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들은 서구 사회의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과다, 고독감, 늙어 가는 데 대한 두려움 같은 상황을 보지 못한다. 또한 환경 파괴 현상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 문제 같은 것들도 보지 못한다. 그러한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해서는 그 한계나 불완전성 같은 것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서구 문화가 갑작스럽게 유입됨에 따라 라다크 사람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에 대해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껴안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현대화의 상징이 되는 물건들을 향해 앞다투어 몰려든다. 선글라스와 워크맨, 몸에 짝 끼는 청바지가 그것들인데,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는 이유는 그것이 매력적이거나 편안한 옷이어서가 아니라 현대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현대화의 상징물들의 영향으로 라다크 사회에서는 공격적 성향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폭력이 미화되는 영화들을 보며 어린 소녀들은 현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 줄담배를 피우고, 빠르게 달리는 멋진 차를 가져야 하고, 시골 길을 질주하며 사람들에게 충을 쏘아 대야 한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다.

라다크의 젊은 친구들에게서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들 모두가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고 안정감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돌보며 할머니와 다정하게 지내던 행복하고 온화한 문화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갔던 과정을 나는 모두 다 지켜보았다.

<제시문 1>의 밑줄 친 부분에 근거하여 <제시문 2>의 라다크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위의 사례를 들어 그 해결책을 논술하시오. (900자 내외)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수시모집 논술시험(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제시문 분석

=====

【문제 1】

《출제의도》

이 문제의 핵심 key word 는 ‘경쟁’이다. <제시문1>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통한 경쟁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시문 2> 는 경쟁이 사회전체에 유리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로 웅변하고 있다. 로버트 프랭크는 ‘경쟁의 종말’에서

“지금껏 시장 경제를 지배해온 논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다. 애덤 스미스의 추종자들은 이 원리를 ‘시장은 항상 개인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사회 전체를 위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한다’로 해석한다. 그리고 어떤 규제도 없는 완전경쟁이 그것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이 원리는 자유 시장의 힘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의 근원이 되어 왔다. 찰스 다윈은 자유주의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경쟁과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때로 개체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종종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할 때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때로는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가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크게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역시 인식했다. 대표적으로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결국 다윈의 이런 통찰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담긴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낭비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씀씀이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의 과다한, 또는 쓸 데 없는 경쟁에서 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비생활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지위 경쟁의 수단으로 작동할 때 낭비가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뿔과 관련한 진화과정은 이러한 지위경쟁이 초래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시문 3>은 경쟁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이다. 저자는 한국의ダイナ믹함이 한편으로 경쟁적 현실의 긍정적 측면이 발현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나치고 무자비한 경쟁이 초래하는 암울한 현실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문제 1-1]의 출제의도는 학생들이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다. <제시문 2>가 <제시문 1>을 비판하는 사례라는 것, 그리고 그 사례가 함축하는 의미를 충분히 서술한다면 좋은 답안이다.

[문제 1-2]의 출제의도는 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의 경쟁양태가 어떠한 모습을 띠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있다. 정답이 없는 열려 있는 문제이므로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가 관건이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 1>은 유명한 Adam Smith의 ‘국부론’의 한 부분을 고등학교 경제 (두산) p 60에서 재인용한 것이며, <제시문 2>는 Robert Frank 의 ‘Darwinian Economy’ (안세민역, 경쟁의 종말 : 승자독식사회 그 후, 미래의 경제질서를 말한다, 웅진지식하우스)에서 다윈의 진화론의 사례를 발췌, 인용한 것이고, <제시문 3>은 맹찬형 저‘따뜻한 경쟁 : 패자부활의 나라 스위스 특파원 보고

서'의 서문을 인용한 것이다.

[문제 1-1]

《제시문 분석》

<제시문 2>는 <제시문 1>의 낙관적이고 조화로운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근거로서 생물학적 진화과정의 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의 사례는 종족 내에서의 지위경쟁을 통한 진화과정이 결과적으로 종족 전체에 커다란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때로 개체와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종종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할 때와 같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별 동물의 이해관계가 종족 전체의 이해관계와 크게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역시 인식했다는 것이다. <제시문 2>는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명제, (즉 <제시문 1>)가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보이는 손'의 효과적인 조정과정이 없는 경우 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 1-2]

《제시문 분석》

<제시문 3>은 한국형의 현재모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다이나믹 코리아는 수많은 긍정적 결과를 창출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자비한 경쟁의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이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전체적으로는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제시문 2>의 통찰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무한경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대안의 예로

1) 패자부활전의 도입과 공존의 방법 모색

- 대학입시처럼 일회적인 승부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고 이것이 평생 지속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패자도 언제나 소위 second chance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체제를 구축
- 인간중심적 사고와 승자와 패자, 또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공존의 철학을 교육

2)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및 복지혜택을 통한 사회적 통합 시스템 구축

- 일시적으로 패자가 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낙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무한경쟁의 폐해를 최소화

3) 국가 공권력이나 자발적 시민사회의 조직적 참여를 통한 불필요한 경쟁의 억제

- 예컨대 지나친 선행학습이나 학원교습 금지, 대학서열의 완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약자 배려

4) 지위경쟁은 과도한 소비를 통해 나타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누진소비세제의 도입 (과도한 소비에 세금을 매기면 자연스럽게 낭비적인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상위 계층의 소비를 준거 기준으로 삼는 중산층 가정과 저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프랭크)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결국 key word 는 경쟁의 다면화 및 패자부활전의 도입, 인간중심 및 공존의 철학,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사회안전망 구축 및 패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

《출제의도》

현대 사회는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 2]는 정보의 획득, 해석, 평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단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하여 우리들 자신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문제 2]는, <제시문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실을 단순히 아는 지식은 사실의 이유나 원인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제시문 2>의 라다크 사회 문제 나아가 우리 자신의 문제들에 적용해 봄으로써,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력과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력, 추상적 명제를 구체적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다양한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 1>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일부로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국어(상)[천재교육, 대표저자 김대행]에 “감각에서 지혜까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지문이다. <제시문 1>이 실려 있는 단원은 현대인의 삶이 정보로 넘쳐나고 있는 정보의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인데, 수많은 정보를 해석·평가하고 취사선택하여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제시문 1>의 밑줄 친 부분 “더욱이 우리는 여러 감각 가운데 어떤 것도 지혜로 여기지 않는데, 분명 그것들은 개별자들에 대해서는 더 없이 중요한 지식들이지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있는지 말해 주지 않으니, 그것이 알려 주는 것은 예컨대 불이 뜨거운 이유가 아니라 불이 뜨겁다는 사실이다.”는, 감각 기관을 통해 접하게 된 사실(정보)들을 단순히 아는 것(지식)보다는, 그 사실과 관련된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지혜)이 더 높은 수준의 인식임을 말한다.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 반복되는 사실을 통해 판단을 갖는 것보다는 그 사실(정보)을 바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더 높은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2>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의 일부로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국어(상)[창비]에 실려 있는 지문이다. <제시문 2> 역시 우리가 접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르게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학습 목표를 가진 단락에서 “생각을 넓게 + 생각을 깊게”라는 추가 읽기 자료로 제시되었다. <제시문 2>는 라다크 사회(혹은 사람들)의 문제가, ‘화려함’과 ‘힘’이라는 이미지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현대화된 사회에 관한 정보들을 겉으로만 보고 그 정보(서구 문화)를 해석·평가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보에 대한 해석과 평가 없이 갖게 된 지식은 한계나 불완전성이 파악되는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고 서구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현상까지 초래함을 보여준다.

정보에 대한 단순 지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화된 인식(지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시문 1>의 내용은 <제시문 2>에 기술된 라다크 사회를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